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8. 5. 15.(화) / 총 11 매
담당 부서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실	담당 자	과장 배성호, 팀장 김광림, 사무관 나은종 ☎ (044) 201-3258, 4095, 3261
보 도 일 시		2018년 5월 1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16(수) 16:30 이후 보도 가능	

##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SOC 아닌 창업·혁신·지역 일자리 대책 망라  
 공공기관의 강점 분야를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집중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플랫폼 활용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로드맵의 수립 경위

-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작년 11월 범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또한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도시·산단·교통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 특히, 부 내에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창업가·취업준비생 등 현장과의 소통도 이어가면서

작지만 손에 잡히는 과제들을 모아,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일자리 종합 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 노력 >



남양주공고('17.12)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18.3)

강호항공고('18.3)

### 로드맵의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구성 체계 >

기본방향	추진과제
1. 일자리 기반 조성	①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② 우리의 지역과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2. 좋은 일자리 창출	③ 국토교통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3. 미래 신산업 육성	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를 육성

- ▶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 ▶ 주거공간, 도시재생,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① 첫째,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마련한다.

- 2022년까지(이하 동일)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천 호 공급하고,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하여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공헌센터 및 중기부와 연계한 전통시장 청년몰 20곳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줄임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하여 임대료 감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철도역과 공항의 매장 22호를 확보하여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 ▶ 도시재생·공공임대주택·혁신도시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판교밸리 모델을 3곳 이상으로 확산하여 혁신창업의 메카로 조성

② 둘째, 도시, 주거, 산단과 같은 우리의 지역과 삶을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하여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창업비용 용자, 창업자 간 교류·소통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지역 내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한편, 노후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으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갈 예정이다.
-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하여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입주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강릉,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오픈캠퍼스와 연계하여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도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의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천 개 이상 창출하는 한편, 협동조합 주택 등 민간 주도 사회임대주택을 시범 추진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 소규모 시설물 안전 관리,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민간 일자리 확대
- ▶ 항공기 조종사, 정비인력 등 항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공공기관 신규채용 13,300명, 나눔일자리 2,400개 등 차질 없는 추진

③ 셋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9만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 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건축안전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천 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도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1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 ▶ 청년 건설인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
- ▶ 버스, 택배 등 교통·물류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점진적 개선

④ 넷째,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 **건설기능인**에게 **경력·자격·훈련** 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도한 **경력·실적기준**을 **현실화**하여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 및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하고,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 관리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 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 차량 신규 허가를 통해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노동강도 저감기술 개발 등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 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구인기업과의 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및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 자격취득제도 정비, 현재 7곳에 불과한 시범구역 확대, 전문 교육기관 확대 등 산업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민소통·정책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과도 적극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유도하여,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간 제공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 일자리가 더 이상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실 김광림 팀장(☎ 044-201-40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가지 약속

## 1.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거 인프라	공공 플랫폼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호형 주거 3,000호</li> <li>희망상가 460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H ... 스마트시티</li> <li>LX ... 공간정보</li> <li>수공 ... 물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생터 푸드트럭</li> <li>휴게소 청년매장</li> <li>철도역 청년매장</li> </ul>

## 2. 우리의 삶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

도시재생	혁신성장 센터	혁신도시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공간 100곳</li> <li>사회적기업 250개 등 -일자리 창출: 8,4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곳 추가 조성</li> <li>300개 기업 입주 -일자리 창출: 1,8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인재 8,400명</li> <li>정주인프라 2,0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지원 확대</li> <li>주거서비스 9,300명</li> </ul>

## 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4. 낙후된 근로여건 개선

건설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마이스터고</li> <li>기능인등급제로 경력관리</li> <li>적정임금제 등 처우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버스운행환경 조성</li> <li>택배차량 年 5천대 신규허가</li> <li>택배 근로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연 200명</li> <li>정비인력 4,000명 양성</li> <li>승무원 외항사 취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채용 13,200명</li> <li>일자리 나누기 2,400개</li> <li>정규직 전환 29,000명</li> </ul>
항공	공공기관

##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과 인재 육성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녹색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도시 구축</li> <li>자격제도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확충</li> <li>안전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수요창출</li> <li>교육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의무화</li> <li>전문교육 확대</li> </ul>

**참고2**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b>I.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b>		
<b>약속1. 창업공간 마련</b>		
①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신동하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044-201-4517)
②	공공임대 희망상가	이경민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044-201-4514)
③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공공임대상가	심재문 도시재생과 사무관(☎044-201-4929)
④	도시재생 첨단창업지원센터	심재문 도시재생과 사무관(☎044-201-4929)
⑤	지역공헌센터, 청년몰	심재문 도시재생과 사무관(☎044-201-4929)
⑥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정재원 도시경제과 사무관(☎044-201-4971)
⑦	공간정보 스타트업	정은정 공간정보센터 사무관(☎044-201-4876)
⑧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김진후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044-201-3848)
⑨	건설 新기술 스타트업	정양기 기술정책과 서기관(☎044-201-3557)
⑩	물산업 스타트업	박창률 수자원산업팀 사무관(☎044-201-3642)
⑪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강철윤 도로정책과 서기관(☎044-201-3876)
⑫	즐음쉼터 푸드트럭	강철윤 도로정책과 서기관(☎044-201-3876)
⑬	철도역사·공항매장 지원	남궁부 철도정책과 사무관(☎044-201-3944)
<b>약속2.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b>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김동혁 도시재생역량과 사무관(☎044-201-4912)
②	도시재생 창업지원	김태웅 도시재생역량과 사무관(☎044-201-4917)
③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문봉섭 도시재생과 사무관(☎044-201-4932)
④	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김동현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044-201-3663)
⑤	물류단지	김진동 물류시설정보과 사무관(☎044-201-4013)
⑥	혁신도시 지역청년채용	양종호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서기관(☎044-201-4458)
⑦	혁신도시 발전재단	심형석 혁신도시산업과 사무관(☎044-201-4489)
⑧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방대혁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사무관(☎044-201-4483)
⑨	새만금개발 사업	김성환 복합도시정책과 사무관(☎044-201-3689)
⑩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윤희근 복합도시정책과 사무관(☎044-201-3686)
⑪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김종욱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044-201-4580)
⑫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임승규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044-201-4109)
⑬	주거지원대상 자립지원	곽인영 공공주택지원과 사무관(☎044-201-4479)
⑭	청년 주거지원	김종욱 공공주택총괄과(행복주택) 사무관(☎044-201-4580)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공공주택지원과(매입·전세) 신익승 사무관(☎044-201-3424) 민간임대정책과(공공지원주택) 박송이 사무관(☎044-201-4476) 주택기금과(금융지원) 박정란 사무관(☎044-201-3341)
<b>II. 좋은 일자리 창출</b>		
<b>약속3.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b>		
①	건설특성화고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044-201-3541)
②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해외건설정책과 김보민 사무관(☎044-201-3518)
③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설안전과 이기세 사무관(☎044-201-3587)
④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044-201-3765)
⑤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산업과 박효철 사무관(☎044-201-3415)
⑥	리츠 규모 확대	부동산산업과 김중환 사무관(☎044-201-3414)
⑦	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항공안전정책과 최진호 사무관(☎044-201-4248)
⑧	항공정비인력 양성·취업	항공안전정책과 최진호 사무관(☎044-201-4248) 첨단항공과 박주환 사무관(☎044-201-4225)
⑨	항공분야 취업지원	항공정책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184) 항공운항과 최수영 사무관(☎044-201-4273)
⑩	공공기관 새일자리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044-201-3216)
⑪	공공기관 나눔일자리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044-201-3216)
<b>약속4. 국토교통 산업 근로여건 개선</b>		
①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	건설정책과 이창훈 서기관(☎044-201-3507)
②	버스운수업 근로여건 개선	교통안전복지과 오한영 사무관(☎044-201-3863)
③	택배 근로여건 개선	물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044-201-4025)
④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044-201-3216)
<b>III. 新산업 육성</b>		
<b>약속5. 4차 산업혁명 선도 新산업 및 인재 육성</b>		
①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정재원 사무관(☎044-201-4971)
②	드론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044-201-4253)
③	자율주행차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044-201-3848)
④	제로에너지	건축정책과 육인수 사무관(☎044-201-4750)
⑤	신교통·물류서비스	신교통개발과(O2O) 김선욱 사무관(☎044-201-3820) 물류정책과(생활물류) 백병성 사무관(☎044-201-3996)